



MVPR-2008-09

# VIP REPORT

2008. 3. 17.

- 산업별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제언
- 한국 경제의 성장 요인 분석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원, 홍순직, 이부형, 허만울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030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02-3669-4030)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 산업별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제언 - 한국 경제의 성장 요인 분석

Executive Summary ..... i

1. 문제 제기 ..... 1

2. 성장 요인 분석 결과 ..... 3

3. 정책적 시사점 ..... 12

■ HRI 경제 지표 ..... 18

## 1. 문제 제기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성장률도 낮고 성장주기도 짧은 조로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양적 투입 위주의 성장패턴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한국 경제가 효율 중심의 저성장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성장 패턴의 변화는 투자정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요인별로 구분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 패턴을 분석하고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대안을 찾아볼 것이다. 특히, 최근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총요소생산성 주도의 성장 전략이 타당성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또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서비스업 주도의 성장이 바람직한 것인지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 2. 성장 요인 분석 결과

**(전산업 분석)** 우리 경제는 2000년대 들어 생산요소 투입 주도의 성장 단계에서 총요소생산성 주도의 성장 단계로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단일 요인은 자본 투입에서 총요소생산성으로 변화하였으나, 노동과 자본 투입을 합한 생산요소의 성장 기여율은 58%로 여전히 총요소생산성의 기여율보다 높은 상황이다.

**(제조업 분석)** 제조업은 이미 1990년대부터 70%대의 기여율을 보이고 있는 총요소생산성 주도의 성장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들면서는 감소 추세이던 노동 투입의 기여도가 0에 근접하는 정체 상태로 진입하고,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도 1990년대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자본 투입 기여도가 크게 낮아졌다. 이는 우리의 제조업의 시설 확장이나 생산성 제고 투자가 이미 1990년대에 마무리되고 2000년대에는 설비투자가 극심히 부진한 가운데 제조업의 성장 활력이 크게 떨어진 정체 국면으로 들어섰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서비스업 분석)** 서비스업은 아직도 노동 투입에 의존하여 제조업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2000년대 들면서 자본 투입의 서비스업 성장 기여도는 감소한 가운데, 노동 투입의 기여도는 대폭 증가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만큼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악화되어 퇴행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제조업에서 이탈한 노동력이 주로 단순 저임 노동 및 영세 자영업에 유입되고 있는 점, 자본 투입의 부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의 높은 해외 의존도 등 구조적 비효율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 산업내 업종별 분석)** 서비스 산업내 업종별로는 서로 상이한 성장 패턴을 보이고 있다. 금융·보험업은 2000년대 들면서 총요소생산성 주도의 성장 패턴으로 급격히 이행하였다. 을 보이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및 인수 합병을 통한 대형화 등으로 효율성이 크게 증가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자본 투입 주도의 성장 패턴이 유지되고 있다. 전기·가스 및 수도업은 산업의 특성상 극단적인 자본 투입형 성장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2000년대 들면서 저부가가치 노동 투입이 대폭 증가하여 중요소생산성 기여율이 대폭 악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기타 서비스 업종은 노동 투입형 성장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노동 투입의 기여도는 증가하고 중요소생산성은 악화되는 퇴행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 3. 정책적 시사점

**첫째, 한국 경제가 자본 투입 주도의 성장 패턴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중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국 경제는 아직 자본 투입 증대를 통한 고율의 성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선진국형의 중요소생산성 주도 성장 방식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수준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본 투입의 기여도가 하락하는 추세를 반전시키는데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투자 확대의 결과에 의한 노동 투입 증대를 도모하여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이 급감하였는데, 이에 대응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도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보다는 양적인 숫자 증가에 초점이 맞춰져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양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종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투자 확대를 최대한 유도하여 생산성 증가에 기여하는 노동 투입의 증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조업 부문은 시설 확장이나 신규사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산업 활력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제조업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산업 활력 저하의 여파로 향후 정체 국면으로 진입할 우려가 있다. 제조업 성장 패턴에 획기적 변화를 초래할 정책적 노력이 요망된다.

**넷째, 서비스업은 노동의존적 구조를 탈피하고 자본 투입과 중요소생산성이 산업 성장을 주도하는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망된다.** 서비스업은 아직도 노동 투입에 의존하는 성장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서비스업은 우리 경제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려 있다.

**다섯째, 서비스업내에서는 업종별 성장 패턴에 따른 차별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금융·보험업은 대형화, 생산성 제고 투자 확대, 금융전문인력의 확보 등 효율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생산성을 제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전기·가스 및 수도업은 중요소생산성 악화를 만회하기 위한 효율성 제고에 주력해야 하며, 이외 여타의 서비스 업종은 자본 투자를 통한 대형화와 함께 효율화도 병행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 산업별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제언

<p>한국 경제의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율 중심의 저성장 패턴으로 구조적 전환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성장, 성장주기 단기화 등 경제 조로화 현상</li> </ul> </li> <li>▪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성장 잠재력 확충 노력 필요</li> </ul>
<p>성장 요인 분석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대 들어 총요소생산성 주도의 성장 단계로 이행 중</li> <li>- 이에 따라 성장성 저하 결과 초래</li> </ul> </li> <li>▪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0년대부터 총요소생산성 주도형 성장</li> <li>- 2000년대는 설비투자의 극심한 부진 속에 성장 활력 저하</li> </ul> </li> <li>▪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투입 주도형 성장 지속</li> <li>- 2000년대 들어 저부가가치 노동투입 증가로 생산성 저하</li> </ul> </li> <li>▪ 서비스 업종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 보험업 : 총요소생산성 주도형 성장</li> <li>- 운수 창고, 통신 : 자본 투입 주도형 성장</li> <li>- 전기 가스, 수도 : 저부가가치 노동투입 증가로 생산성 저하</li> <li>- 여타 서비스업 : 노동투입 주도형으로 생산성 저하</li> </ul> </li> </ul>
<p>정책적 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째, 한국 경제의 자본투입 주도 성장 패턴 복귀를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li> <li>▪ 둘째, 투자 확대에 의한 노동 투입 증대로 생산성 저하 방지</li> <li>▪ 셋째, 제조업의 투자 확대 유도로 산업 활력 증진</li> <li>▪ 넷째, 서비스업의 노동 의존적 구조 탈피</li> <li>▪ 다섯째, 서비스 업종별로 차별화된 성장 정책 추진</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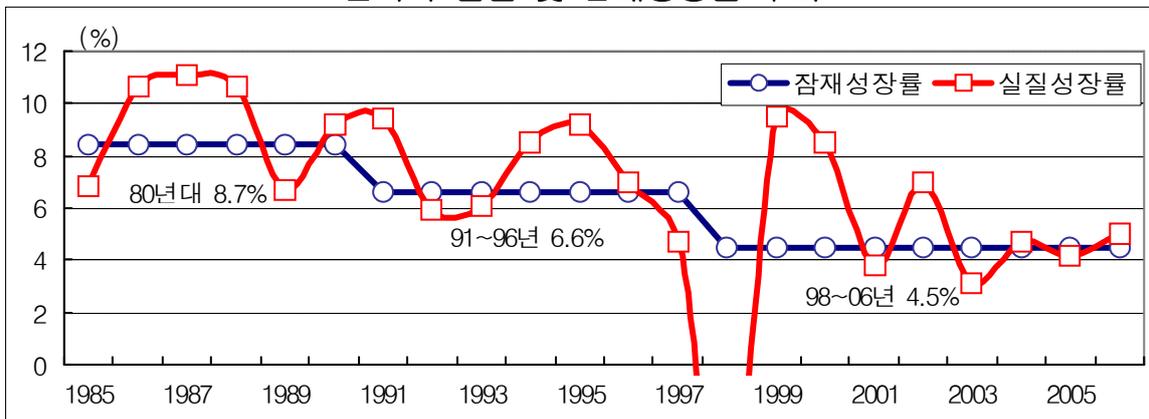
# 산업별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제언

## 1. 문제 제기

### ○ 한국 경제의 성장률 추이

- 한국 경제의 실질 성장률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평균 성장률 기준으로 '80년대 9.0%, '90년대 5.7%, '00년대 4.7%를 기록<sup>1)</sup>
  -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성장률 수준도 낮은 데다가 성장주기도 짧은 경제 조로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실질 성장률 하락은 경기순환적인 측면에서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잠재 성장률의 추세적인 하락을 반영하고 있음
  - 본 연구원의 추세 GDP 방식을 통한 추정 결과에 의하면 잠재성장률은 '91~97년 기간의 6.6%에서 '98~06년 기간에는 4.5% 수준으로 하락<sup>2)</sup>

< 한국의 실질 및 잠재성장률 추이 >



자료: 한국은행

주 1: 잠재성장률은 단순추세법(H-P 필터링)을 이용하여 추정

2: 기간중 연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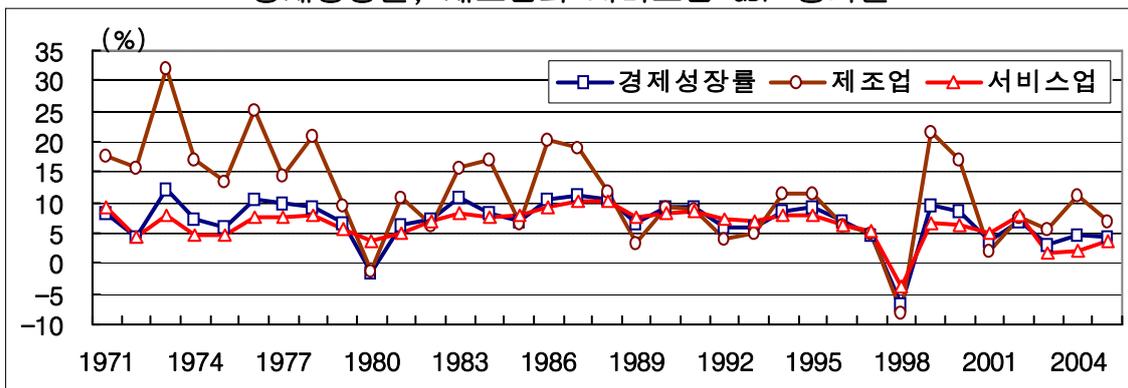
- 1) 1990년대는 외환위기 기간인 1998년을 제외하면 실질 성장률이 단순 평균 기준 7.6%임
- 2) 한국은행(2005)은 2005~2014년 4.6%, 한국개발연구원(2002)은 2003~2007년 4.8~5.4%,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7)은 2001~2005년 4.1% 수준으로 잠재성장률을 추정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보수적인 경영행태 정착과 이로 인한 설비투자 부진으로 경제의 회복력이 많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양적 투입 위주의 성장패턴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한국 경제가 효율 중심의 성장패턴으로 구조적인 전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 산업별 성장 요인 분석의 필요성

-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산업별 GDP 증가율을 보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 서로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연도별 GDP 증가율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전반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는 것은 제조업 부문임<sup>3)</sup>
  - 또한, 성장 패턴도 제조업은 총요소생산성 주도형, 서비스업은 생산요소 주도형으로 나뉘고 있음
- 이와 같이 산업별로 주도적인 성장요인이 다르므로 산업별 성장 요인 분석을 통해 성장 행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별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시사점 도출

< 경제성장률, 제조업과 서비스업 GDP 증가율 >



자료: 한국은행

3) 실질 GDP로 본 제조업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율은 2001~2005년 기간 중 44.31%로 서비스업의 기여율 40.27% 보다 높음

## 2. 산업별 성장 요인 분석

### 1) 산업별 성장 기여도

- 한국 경제는 1990년대 들면서 제조업의 성장 기여도가 급격히 상승
  - 제조업 경제성장 기여율은 1970년대 26.0%에서 2000년대 44.3%까지 상승
  - 반면, 서비스업은 2000년 이전까지 거의 50%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했으나 2000년대 들면서 40% 수준으로 급감
  - 이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 기여율은 2000년대 들면서 역전

< 제조업, 서비스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 >

구분	1971~1980년	1981~1990년	1991~2000	2001~2005년
제조업	26.0%	25.7%	33.1%	44.3%
서비스업	48.1%	49.5%	49.8%	40.3%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이와 같이 제조업의 성장 기여율이 상승한 것은 제조업이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GDP 증가율을 기록했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980년대 이후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나, 제조업 GDP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는 높아서 전체 경제성장을 견인

< 경제성장률 및 제조업 GDP 증가율 변화 추이 >

구분	1971~1980년	1981~1990년	1991~2000년	2001~2005년
경제성장률 (A)	7.13%	9.02%	5.72%	4.74%
제조업 GDP 증가율 (B)	16.05%	12.04%	7.97%	7.80%
B - A	8.92%p	3.02%p	2.25%p	3.04%p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또한, 제조업은 자본 투입 증가율이 노동 투입 증가율을 상회하여 자본 집약형 성장패턴을 보이고 있음
- 제조업은 1990년대까지는 자본 투입 증가율과 노동 투입 증가율 간의 격차가 확대되어 급속한 물적 자본 축적이 이루어짐

< 제조업의 노동 투입 및 자본 투입 증가율 추이 >

구분	1971~1980년	1981~1990년	1991~2000년	2001~2005년
노동투입 (A)	9.26%	6.20%	-2.01%	-0.19%
자본투입 (B)	14.06%	12.53%	7.66%	5.61%
B - A	5.20%p	6.33%p	9.67%p	5.80%p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반면 서비스업은 GDP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회하여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요소 투입의 측면에서는 서비스업도 자본 투입 증가에 의존하는 성장을 지속해옴

< 경제성장률 및 서비스업의 GDP 증가율 >

구분	1971~1980년	1981~1990년	1991~2000년	2001~2005년
경제성장률(A)	7.13%	9.02%	5.72%	4.74%
서비스업 GDP 증가율(B)	6.00%	8.48%	5.60%	3.79%
B - A	△1.13%p	△0.54%p	△0.12%p	△0.95%p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서비스업의 노동 투입 및 자본 투입 증가율 >

구분	1991~2000년	2001~2005년
노동투입	4.10%	2.56%
자본투입	12.35%	6.25%
B - A (%p)	8.25%p	3.69%p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 서비스업은 1990년까지는 부분적으로만 자료가 존재하여 제외

## 2) 산업별 성장 요인 분석

### (1) 분석 개요

#### ○ 이론적 배경

- 경제발전 이론에 의하면 경제가 발전해 갈수록 생산요소 투입 주도의 성장 패턴에서 총요소생산성 주도의 성장 패턴으로 이진<sup>4)</sup>
  - 초기에는 노동 투입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하나 노동 투입이 수확체감의 법칙에 의해 한계 상황에 도달하면 성장 정체
  -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 투입 주도의 경제체제로 전환 필요
  - 자본 투입도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야 함
- 성장 요인을 기준으로 성장 단계를 구분할 경우, 일반적으로 후진국은 노동투입 주도형, 중진국은 자본투입 주도형, 선진국은 총요소생산성 주도형으로 구분
  - 다만, 성장 단계를 노동투입 주도, 자본투입 주도, 총요소생산성 주도로 구분 짓는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 상대적인 비중에 근거하여 자의적으로 분류

#### ○ 분석의 틀

- 본 보고서에서는 산업별, 기간별 성장회계 분석 방식(growth accounting

4)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대체로 기술을 외생변수로 간주한 외생적 성장이론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80년대 들면서 기술을 경제주체가 의도적으로 증가시켜 이것이 성장을 자극한다는 내생적 성장이론이 등장. 외생적 성장론은 성장에 있어서 기술을 외부에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변수로 보는 반면, 내생적 성장론에서는 경제체제 내에서 다른 생산요소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에 기여하는 변수로 간주함. 기술진보를 가져오는 요인에 대해 내생적 성장론에서는 학습효과(Romer, 1986), 인적 자본론(Lucas, 1990), R&D투자(Romer, 1990, Aghion & Howitt, 1998), 공공하부구조(Barro, 1990) 등 크게 네 가지 형태 구분

analysis)을 이용하여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의 기여율을 측정

- 이를 위해 Cobb-Douglas 생산함수를 가정하고, 산업별로 노동과 자본의 소득분배율을 활용하여 노동투입, 자본투입, 그리고 총요소생산성(TFP)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추정함<sup>5)</sup>
- 완전경쟁 생산요소 시장을 가정하여 노동 소득분배율과 자본 소득분배율의 합은 1임<sup>6)</sup>

- 분석 자료로는 국민소득통계, 산업별 취업자수 그리고 자본스톡<sup>7)</sup>의 추계치를 이용

- 산업 분류는 국민계정상 13개 산업을 기준으로 함

## (2) 성장 요인 분석 결과

### ○ 전산업 분석

- 우리 경제는 2000년대 들어 생산요소 투입 주도의 성장 단계에서 총요소생산성 주도의 성장 단계로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우리 경제는 중화학공업화에 힘입어 이미 1970년대부터 자본투입 주도형 성장 단계로 진입
- 2000년대에는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단일 요인은 자본 투입에서 총요소생산성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 노동과 자본 투입을 합산시, 아직 생산요소 투입 주도 단계에 머물러 있음(생산요소 투입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1991~2000년 71.5%에서 2001~2005년 57.8%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50% 수준을 상회)

5)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은 최요철 외, 『산업별 인적자적의 추계와 성장요인 분석』, Monthly Bulletin, 한국은행, February 2007에서 발췌하여 사용함:

6)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첨부 1 : 분석 자료 및 추정 절차」 참조

7) 국민소득통계는 한국은행, 산업별 취업자수는 통계청, 산업별 자본스톡은 표학길 외, 『한국의 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스톡 및 자본계수 추계: 11개 자산-72부문(1970~2005)』, 한국경제의 분석, 13권3호, 2007년 12월에서 발췌하여 사용함

< 전산업의 성장 요인별 기여도 추이 >

구 분	1971~1980년	1981~1990년	1991~2000년	2001~2005년
경제성장률	7.13%	9.02%	5.72%	4.74%
노동투입 기여도 (기여율)	2.56%p (35.9%)	2.03%p (22.5%)	0.96%p* (16.8%)	1.03%p (21.7%)
자본투입 기여도 (기여율)	3.27%p (45.9%)	3.74%p (41.5%)	3.13%p (54.7%)	1.71%p (36.1%)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기여율)	1.30%p (18.2%)	3.24%p (35.9%)	1.63%p (28.5%)	2.00%p (42.2%)

주 1: 본원 추정,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사용. 자세한 함수는 부록 참조  
 2: \* 는 해당 자료가 1992~2000년 기간임을 의미함  
 3: ( )안은 기여율로서 각각의 기여도가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 선진국의 경우에는 총요소생산성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패턴임

- 자본투입의 기여도가 매우 낮아 경제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이며
- 이는 총요소생산성 주도의 경제성장으로는 5%대 이상의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의미함

< 세계 주요국의 성장요인 분석: 1990~2000년 >

국 가	경제성장률	기여도			총요소생산성 기여율
		노동투입	자본투입	총요소생산성	
호 주	3.60%	0.92%p	0.91%p	1.76%p	49%
벨 기 에	2.35%	0.84%p	0.65%p	0.85%p	36%
캐 나 다	2.91%	0.83%p	0.24%p	1.83%p	63%
덴 마 크	2.14%	0.30%p	0.32%p	1.52%p	71%
핀 란 드	2.03%	-0.49%p	-0.13%p	2.66%p	131%
프 랑 스	1.80%	0.42%p	0.76%p	0.63%p	35%
이탈리아	1.61%	0.14%p	0.81%p	0.66%p	41%
네덜란드	2.78%	1.26%p	0.64%p	0.89%p	32%
노르웨이	3.60%	0.67%p	0.49%p	2.45%p	68%
미 국	3.15%	0.95%p	0.13%p	2.07%p	66%
평 균	2.60%	0.58%p	0.48%p	1.53%p	59%

자료: 김동석, '산업부문별 성장요인분석 및 국제비교', 한국개발연구원, 2004.12

주 1: 프랑스의 분석 대상기간은 1991~2000이며, 이탈리아는 1992~2000임

2: 평균은 단순 평균임

○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석

- 제조업은 이미 1990년대부터 총요소생산성 주도의 성장 단계로 진입하였음

- 제조업 GDP 증가율에 대한 노동 투입 기여도는 1990년대의 마이너스 상태에서부터 2000년대 들면서 다소 회복하여 정체 국면으로 진입
- 반면 자본 투입 기여도는 1990년대에 비해서도 감소세를 지속
- 반면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1990년대에 급등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동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이는 1990년대에 제조업의 시설 확장 투자나 생산성 제고 투자가 마무리 되어 2000년대에는 설비투자가 극심한 부진 상황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함

< 제조업의 성장 요인별 기여도 추이 >

구 분	1971~1980년	1981~1990년	1991~2000년	2001~2005년
제조업 GDP 증가율	16.05%	12.04%	7.97%	7.80%
노동투입 기여도 (기여율)	5.30%p (33.0%)	3.55%p (29.5%)	-1.15%p (-14.4%)	-0.08%p (-1.0%)
자본투입 기여도 (기여율)	6.02%p (37.5%)	5.36%p (44.5%)	3.28%p (41.2%)	2.40%p (30.8%)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기여율)	4.74%p (29.5%)	3.13%p (26.0%)	5.84%p (73.3%)	5.48%p (70.3%)

주: ( )안은 기여율로서 각각의 기여도가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 서비스업은 아직도 노동 투입에 의존하는 성장단계에 머물러 있음

- 서비스업 GDP 증가율의 노동 투입 기여율은 2001~2005년에 84.4%에 달하여 1991~2000년의 45.5%에 비해 38.9%p나 증가하는 퇴행적인 모습임
- 반면 총요소생산성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 이는 제조업에서 이탈한 노동력이 주로 단순 저임 노동 및 영세 자영업에 유입되고 있는 점<sup>8)</sup>, 노동 의존적 생산구조,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의

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예를 보자면, 성장률은 1991~2000년중 4.92%, 2001~2005년

높은 해외 의존도 등 구조적 비효율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 서비스업의 성장 요인별 기여도 추이 >

구 분	1971~1980년	1981~1990년	1991~2000년	2001~2005년
서비스업 GDP 증가율	6.00%	8.48%	5.60%	3.79%
노동투입 기여도 (기여율)	-	-	2.55%p* (45.5%)	3.20%p (84.4%)
자본투입 기여도 (기여율)	3.25%p (54.2%)	4.13%p (48.7%)	3.58%p (63.9%)	2.00%p (52.8%)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기여율)	-	-	-0.33%p (-5.9%)	-1.03%p (-27.2%)

주 1: \*는 해당 자료가 1992~2000년 기간임을 의미함

2: ( )안은 기여율로서 각각의 기여도가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 서비스 산업내 업종별 분석

① 금융·보험업: 총요소생산성 주도의 성장 패턴을 보이고 있음

- 금융·보험업은 2000년대 들면서 노동 투입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자본투입 기여도도 크게 하락한 반면,

< 금융·보험업의 성장 요인별 기여도 추이 >

구 분	1971~1980년	1981~1990년	1991~2000년	2001~2005년
금융보험업 GDP 증가율	19.54%	17.72%	7.35%	6.07%
노동투입 기여도 (기여율)	-	-	1.74%p* (23.67%)	-0.21%p (-3.46%)
자본투입 기여도 (기여율)	7.74%p (39.61%)	9.10%p (51.35%)	5.03%p (68.44%)	2.23%p (36.74%)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기여율)	-	-	0.58%p (7.89%)	4.05%p (66.72%)

주 1: \*는 해당 자료가 1992~2000년 기간임을 의미함

2: ( )안은 기여율로서 각각의 기여도가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중 1.08%로 3.84%p 하락하였고, 노동투입의 기여율은 동 기간 -14.0% 및 -1.0%로 음의 기여율을 보임

-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전체 금융·보험업 GDP 증가율의 2/3에 달함
- 이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및 인수 합병을 통한 대형화 등으로 효율성이 크게 증가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됨

② 운수·창고 및 통신업: 자본 투입 주도의 성장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노동 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의 기여율 감소 추세
- 자본 투입 기여율은 1991~2000년 48.31%에서 2001~2005년 61.37%로 증가
- 노동과 자본을 합산한 생산 요소 투입의 기여율은 1991~2000년 기간 중 64.5%에서 2001~2005년 기간 중 72.7%로 증가

<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성장 요인별 기여도 추이 >

	1991~2000년	2001~2005년
운수·창고 통신업 GDP 증가율	9.15%	6.42%
노동투입 기여도 (기여율)	1.56%p (17.05%)	0.73%p (11.37%)
자본투입 기여도 (기여율)	4.42%p (48.31%)	3.94%p (61.37%)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기여율)	3.16%p (35.54%)	1.75%p (27.26%)

주: ( )안은 기여율로서 각각의 기여도가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③ 전기·가스 및 수도업: 산업의 특성상 극단적인 자본 투입형 성장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자본 투입이 전기·가스 및 수도업 GDP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는 100%를 전후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 2000년대 들면서 저부가가치 노동 투입이 대폭 증가하여 총요소생산성 기여율이 -54% 수준으로 대폭 확대

< 전기·가스 및 수도업의 성장 요인별 기여도 추이 >

	1991~2000년	2001~2005년
전기·가스 수도업의 GDP 증가율	9.05%	6.69%
노동투입 기여도 (기여율)	-0.10%p (-1.10%)	4.18%p (62.48%)
자본투입 기여도 (기여율)	9.95%p (109.94%)	6.14%p (91.78%)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기여율)	-0.80%p (-8.84%)	-3.63%p (-54.26%)

주 : ( )안은 기여도를 증가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낸 기여율임

④ 기타 서비스 업종: 노동 투입형 성장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노동 투입의 기여도는 증가하고 총요소생산성은 악화되는 퇴행적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은 2001~2005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의 기여율이 각각 -123.87%와 -38.50%에 머문 반면,
- 노동 투입의 기여율이 각각 108.06%와 128.78%를 기록하여 노동 집약적 산업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외의 서비스업종도 높은 노동 투입 기여율과 마이너스의 총요소생산성을 기록하는 등 노동 투입 주도형 성장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이는 기존의 제조업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서비스업의 성장이 지체되어 노동 투입형 성장 패턴이 유지되는 가운데
- 2000년대 들면서 저부가가치 노동 투입이 급격하게 늘어나 총요소생산성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 3. 정책적 시사점

- 첫째, 한국 경제가 자본 투입 주도의 성장 패턴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함
  - 전산업 분석 결과 한국 경제는 자본 투입 의존적 성장 패턴에서 총요소생산성 주도의 성장 패턴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국 경제는 아직 자본 투입 증대를 통한 고용의 성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 선진국형의 총요소생산성 주도 성장 방식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수준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한국 경제는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자본 투입의 기여도가 하락하는 추세를 반전시키는데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임
  
- 둘째, 투자 확대의 결과에 의한 노동 투입 증대를 도모하여 생산성 저하를 방지해야 함
  -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의 부족, 제조업 등의 고용 조정 등으로 노동 시장 여건이 매우 취약해지면서
  - 제조업으로부터 이탈한 노동인력이나 신규 노동시장 진입 인력들이 서비스 업종의 저부가가치 일자리로 진입하였으며
  - 이에 더하여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보다는 양적인 숫자 증가에 초점이 맞춰져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양산
  - 이에 따라, 서비스업종의 노동 투입의 기여도는 크게 상승한 반면,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총요소생산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함
  - 비록, 과거에 비해 고용유발효과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투자 확대의 결과로 공급되는 일자리가 양질의 고부가가치 일자리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향후 정부는 생산성 증가에 기여하는 노동 투입의 증가를 위하여 신성장 동력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존 산업의 확장 투자를 최대한 유도하여야 함

- 셋째, 제조업 부문은 시설 확장이나 신규사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성장력을 확충해야 함
  - 제조업은 1990년대에 시설 확장 투자나 생산성 제고 투자가 마무리되고 2000년대 들면서는 설비투자가 정체 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제조업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향후 산업의 활력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제조업 성장 구조의 획기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성장잠재력의 잠식 현상이 가시화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제조업의 성장력 복원을 위하여 기존 산업의 확장 투자와 신성장산업에의 신규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넷째, 서비스업 전반적으로는 노동 투입에 의존한 성장 패턴에서 자본 투입과 총요소생산성 주도의 패턴으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망됨
  - 서비스업은 2000년대 들면서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율은 증가하였으나, 총요소생산성의 기여율이 감소하여 그 효과를 상쇄하고 있음
  - 이는 제조업이 구조조정과 신규 투자 부진으로 고용흡수력이 떨어진 가운데, 제조업에서 이탈한 노동력이 주로 단순 저임 노동 및 영세 자영업에 유입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서비스업종 전반적인 노동의존적 생산구조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의 해외의존도 등 구조적 비효율성에 기인하는 바도 큰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서비스업은 생산성 부진 분야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함께 자본 투입과 R&D 투자 확대를 통한 대형화 및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함
  
- 다섯째, 서비스업내에서는 업종별 성장 패턴에 따른 차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보험업은 총요소생산성 주도의 성장 패턴을 보이고 있으므로,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 생산성 제고 투자 확대, 금융전문인력의 확보 등 효율성 제고에 주력해야 함

-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자본 투입 주도 단계에 있으므로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생산성을 제고 노력을 병행해야 함
- 전기·가스 및 수도업은 2000년대의 저부가가치 노동 투입 확대에 따른 총요소생산성 악화를 만회하기 위한 효율성 제고에 주력해야 함
- 이외 여타의 서비스 업종은 노동 투입 위주의 성장 단계에 머물고 있는데 더하여 2000년대에는 대규모 저부가가치 노동 투입에 상응한 총요소생산성 악화도 발생하여 자본 투자를 통한 대형화와 함께 효율화도 병행 필요

임희정 연구위원 (3669-4031, limhj9@hri.co.kr)

## 첨부 1 : 분석 자료 및 추정 절차

○ (분석 자료 및 추정) 국민 소득 통계, 산업별 취업자수 그리고 자본스톡<sup>9)</sup> 추계치를 원자료로 하여 통계 분류상의 13개 산업 부문을 생산요소 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를 추정함

- 산업별 성장 요인을 추정하기 위해 Cobb-Douglas 생산 함수를 가정하고, 산업별로 노동과 자본의 소득배율을 추정하여 성장 회계 분석을 통해 노동 투입, 자본 투입, 그리고 TFP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추정함<sup>10)</sup>

- Cobb-Douglas 생산 함수 ( $Y_{it} = A_{it}L_{it}^{\alpha_{it}}K_{it}^{\beta_{it}}$ )에서  $Y_{it}$ 는 i 산업의 t 시점의 생산량,  $L_{it}$ 는 i 산업의 t 시점의 노동 투입,  $K_{it}$ 는 i 산업의 t 시점의 자본스톡, 그리고  $A_{it}$ 는 i 산업의 t 시점의 TFP(Total Factor Productivity)임

- 기여도를 추정에 필요한 연평균 증가율은 기하평균이고, 경제성장률은 소득 분배율로 조정된 노동 투입, 자본 투입, 그리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합계를 말함

-  $\alpha_{it}$ 는 i 산업의 t 시점의 노동 소득 분배율(labor income share)이고,  $\beta_{it}$ 는 i 산업의 t 시점의 자본 소득 분배율이고, 분석 시에는 산업별로 노동과 자본의 소득 배율을 다르게 적용하나, 시점별로는 동일한 배율을 적용함

· 생산 요소 시장이 완전경쟁일 경우, 노동 소득 분배율( $\alpha_i$ )과 자본 소득 분배율( $\beta_i$ )의 합은 1임을 가정함

9) 국민소득통계는 한국은행, 산업별 취업자수는 통계청, 산업별 자본스톡은 다음의 논문에서 발췌하여 사용함: 표학길 외, 『한국의 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스톡 및 자본계수 추계: 11개 자산-72부문(1970~2005)』, 한국경제의 분석, 13권3호, 2007년 12월

10)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은 다음의 논문에서 발췌하여 사용함: 최요철 외, 『산업별 인적자본의 추계와 성장요인 분석』, Monthly Bulletin, 한국은행, February 2007

첨부 2 : 산업별 국내총생산(GDP) 증감률

(단위: %)

구분		1971~1980년	1981~1990년	1991~2000년	2001~2005년
경제성장률		7.13	9.02	5.72	4.74
농림 및 어업		0.90	1.53	1.73	0.14
광업		5.46	- 0.20	- 4.53	- 1.53
제조업		16.05	12.04	7.97	7.80
건설업		11.87	12.44	1.22	3.23
서비스업 소계		6.00	8.48	5.60	3.79
서비스	도소매 및 음식·숙박	6.08	9.70	4.92	1.08
	운수·창고 및 통신	13.16	8.67	9.15	6.42
	금융·보험업	19.54	17.72	7.35	6.0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6.68	8.65	5.89	3.10
공공 부분	전기·가스 및 수도	17.72	15.46	9.05	6.69
	공공행정·국방	2.38	3.06	3.12	2.48
	교육서비스	4.36	4.79	2.44	2.87
	보건 및 사회복지	8.81	15.78	3.49	5.35
	기타 서비스	5.22	10.37	6.79	3.49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민계정」, 각년도

첨부 3 : 산업별 노동 투입의 기여도

(단위: %p)

구분		1971~1980년	1981~1990년	1991~2000년	2001~2005년
산업 (총계)		2.56	2.03	0.96*	1.03
농림 및 어업		-0.25	-3.20	-1.60	-3.07
광업		2.13	-2.15	-5.95	-0.62
제조업		5.30	3.55	-1.15	-0.08
건설업		7.73	3.63	0.00	0.88
서비스 (소계)		-	-	2.55*	3.20
서비스	도소매 및 음식·숙박	-	3.24	3.04	-0.05
	운수·창고 및 통신	-	2.89	1.56	0.73
	금융·보험업	-	-	1.74*	-0.21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	-	4.11*	3.35
공공 부분 아	전기·가스 및 수도	-	1.76	-0.10	4.18
	공공행정·국방	-	-	3.36*	2.83
	교육서비스	-	-	2.85*	5.65
	보건 및 사회복지	-	-	4.51*	6.89
	기타 서비스	-	-	1.84*	5.42

주 : 1) \* 는 해당 자료가 1992~2000년 기간임을 의미함  
 : 2) 서비스 (소계)는 서비스 부문의 산술평균 값 임

첨부 4 : 산업별 자본 투입의 기여도

(단위: %p)

구분		1971~1980년	1981~1990년	1991~2000년	2001~2005년
산업 (총계)		3.27	3.74	3.13	1.71
농림 및 어업		2.98	1.68	1.41	1.15
광업		5.43	3.30	-0.33	2.91
제조업		6.02	5.36	3.28	2.40
건설업		4.39	4.24	2.51	-0.07
서비스 (소계)		3.25	4.13	3.58	2.00
서비스	도소매 및 음식·숙박	2.55	1.88	1.75	0.29
	운수·창고 및 통신	2.67	3.29	4.42	3.94
	금융·보험업	7.74	9.10	5.03	2.23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6.03	7.09	6.59	3.60
공공분야	전기·가스 및 수도	8.31	9.35	9.95	6.14
	공공행정·국방	0.48	1.61	1.15	0.42
	교육서비스	0.48	1.62	1.02	0.52
	보건 및 사회복지	0.48	1.60	1.20	0.52
	기타 서비스	0.48	1.58	1.11	0.38

주 : 서비스(소계)의 기여도는 각 산업들의 산술평균 임

첨부 5 :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

(단위: %p)

구분		1971~1980년	1981~1990년	1991~2000년	2001~2005년
산업(총계)		1.30	3.24	1.63	2.00
농림 및 어업		-1.83	3.05	1.92	2.07
광업		-2.10	-1.35	1.75	-3.81
제조업		4.74	3.13	5.84	5.48
건설업		-0.24	4.57	-1.29	2.42
서비스 (소계)		-	-	-0.33	-1.03
서비스	도소매 및 음식·숙박	-	4.58	0.13	0.84
	운수·창고 및 통신	-	2.49	3.16	1.75
	금융·보험업	-	-	0.58	4.0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	-	-4.81	-3.84
공공분야	전기·가스 및 수도	-	4.35	-0.80	-3.63
	공공행정·국방	-	-	-1.39	-0.77
	교육서비스	-	-	-1.43	-3.29
	보건 및 사회복지	-	-	-2.22	-2.06
	기타 서비스	-	-	3.84	-2.32

## HRI 經濟 指標

---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P)	2008(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7.0	3.1	4.7	4.2	5.0	4.9	5.1
	최종소비지출 (%)	7.6	-0.3	0.4	3.9	4.5	4.5	4.6
	민간소비 (%)	7.9	-1.2	-0.3	3.6	4.2	4.4	4.5
	총고정자본형성 (%)	6.6	4.0	2.1	2.4	3.2	4.1	5.8
	건설투자 (%)	5.3	7.9	1.1	-0.2	-0.4	1.6	3.8
	설비투자 (%)	7.5	-1.2	3.8	5.7	7.6	7.5	8.5
대 외 통 관 래 기 준	경상수지 (억 \$)	54	119	282	150	54	60	-50
	무역수지 (억 \$)	103	150	294	232	161	151	60
	수출 (억 \$)	1,625	1,938	2,538	2,844	3,255	3,718	4,110
	증가율 (%)	(8.0)	(19.3)	(31.0)	(12.0)	(14.4)	(14.2)	(10.5)
	수입 (억 \$)	1,521	1,788	2,245	2,612	3,094	3,567	4,050
	증가율 (%)	(7.8)	(17.6)	(25.5)	(16.4)	(18.4)	(15.3)	(13.5)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2.7	3.6	3.6	2.8	2.2	2.5	2.8
	실업률 (%)	3.1	3.4	3.7	3.7	3.5	3.2	3.0
금 융	원/\$ 환율 (평균, 원)	1,253	1,192	1,145	1,024	955	929	915
	국고채금리 (평균 %)	5.8	4.6	4.1	4.3	4.8	5.2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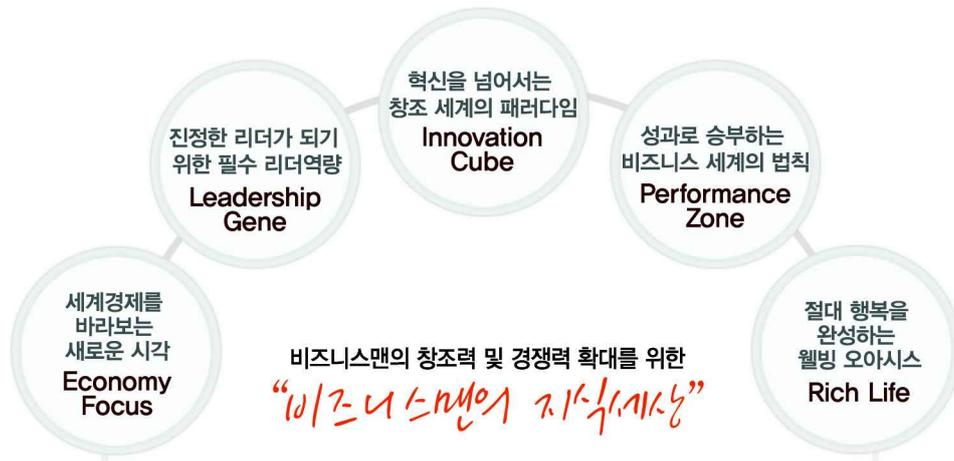
# 내 인생 최고의 멘토를 만나다!

## Creative business contents tank, Usociety

21세기는 지식 경쟁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트렌드, 나만 뒤쳐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비즈니스맨들의 창조력 충전 및 경쟁력 확대를 위한 지식 정보 콘텐츠,  
 Usociety에서 만나보세요.

### 비즈니스 지식 정보 TV, CreativeTV.co.kr

창조의 5분, 성공의 5분! 그 5분을 위한 다이제스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Usociety의 미션입니다.  
 HD VIDEO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과 지혜를 나누십시오.



### 글로벌 비즈니스의 완성, EBS 어학 프로그램

최고의 어학 강의, EBS 어학 콘텐츠! 국내 대표 강사진들의 명 강의로 구성된 3,200편 이상의 풍부한 어학 프로그램을 Usociety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Business	Conversation	Global
영어인터뷰 START 인터뷰 영어족보 비즈니스영어 모질게 new TOEIC 비겁한 new TOEIC 外	Style English Survival English 영어 말하기 START Oxford 회화 말미잘 English 外	리듬 중국어 입문 이키이키 일본어 러시아어 첫걸음 스페인어 첫걸음 터키어 첫걸음 外

### 차별화된 경쟁력, Competency Tools

#### 지식노트

경제, 사회, 문화에서 저널까지 한 눈에 보는 weekly webzine

#### U-Times

지식 트렌드를 손에 잡을 수 있는 콘텐츠 매거진

#### U-Planner

프로페셔널리즘의 시작, 웹 프랭클린 플래너

#### eBook

비즈니스에서 교양까지, 시간으로만 채워지는 digital library

